

유언호(兪彦鎬) 『연석(燕石)』의 평점비평 연구*

표가령**

- I. 서론
- II. 『연석』 평점비평의 개관
- III. 『연석』 평점비평의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유언호(兪彦鎬, 1730~1796)의 문집 『연석(燕石)』에 수행된 평점비평의 특징적 면모를 고구하고 그 의미를 밝힌 것이다. 현전하는 유일본 자료인 장서각본 『연석』을 주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되, 학계에 새로 소개된 『연석』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연석』의 평점비평의 배경을 살폈다. 이를 통해 『연석』에 평점비평을 행한 주체가 박지원(朴趾源, 1737~1805)과 유한준(兪漢雋, 1732~1811)임을 확정하였다.

『연석』에 수행된 평점비평의 방식은 크게 권점(圈點)과 평어(評語)로 나뉘는 한편 붉은색과 푸른색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붉은색이 박지원의 것, 푸른색이 유한준의 것이다. 『연석』에 사용된 권점과 평어는 명대(明代)의 대표적인 평점비평서인 모곤(茅坤, 1512~1601)의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및 18세기 조선에 유통되었던 평점비평서들에 보이는 방식들을 공유하면서도 차별된 성격을 내포한다. 특히 평어에서 대상 작품과 연관된 다른 작품 혹은 작가를 인용하여 제시하는 경우, 『연석』의 평어에서는 조선 시대 선배 문인 및 당대 문인으로 인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다른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2일 국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특징이다. 그 밖에 평비자가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평비자가 알고 있는 사실 정보 및 관련 일화를 부연 서술하는 방식 등이 『연석』 평점비평 방식의 독특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평점비평의 배경과 방식을 바탕으로 ‘권점’과 ‘평어’의 측면에서 『연석』 평점비평의 의미를 밝혔다. 먼저, 『연석』이 ‘유언호-박지원-유한준’의 세 시기가 포개어진 텍스트라는 점에서 기호화된 ‘권점 비평’ 역시 독특한 비평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권점 비평 행위를 대화적 지평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다음으로는 평어를 통해 평비자가 자신을 ‘서명’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박지원의 평어에서 확인된다. 한편 이 같은 성격의 평어는 평비자가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상 작품과 평어가 상호 조응하는 비평 방식임을 밝혔고, 이는 박지원이 『연석』에 평점비평을 하고 난 시점보다 이후에 행해진 『청성잡기(靑城雜記)』나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에 보이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이의준(李義駿, 1738~1798) 등의 평어에 보이는 비평방식과 유사함을 밝혔다. 요컨대 『연석』은 18세기 후반 조선 문인들 사이의 상호 평점비평이 성행하던 시기에 등장한 평점비평서로서 당대의 평점비평이라는 시대사적·문화사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박지원과 유한준의 산문 비평의 실체와 그들의 비평 가적 면모 및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유언호(兪彦鎬), 『연석(燕石)』, 박지원(朴趾源), 유한준(兪漢雋), 평점비평(評點批評), 산문 비평

1. 서론

평점비평은 전근대 문인들의 작품 감상 및 비평 행위로 비평가의 감상이 기호로 표현된 권점(圈點)과 언어로 표현된 평어(評語)로 이뤄져 있다.¹⁾ 중국

1) 권점은 ‘批點’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평어는 ‘批’ 혹은 ‘評批’, ‘批評’이라는 용어와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批’라는 용어가 권점과 평어에서 혼용되는 이유는 평점비평서마다 ‘批’의 의미방이 확대 혹은 축소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비’가 권점과 같이 기호로

에서부터 연원한 평점비평은 송대(宋代)에 접어들어 정립되었으며 중국의 평점비평서는 고려 시대 때부터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다만 본격적인 수용은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의 『고문관건(古文關鍵)』과 같은 산문 독법에 관한 서적을 시작으로 모곤(茅坤, 1512~1601)의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抄)』와 같은 명대 평점비평서들이 조선에 대거 유입되면서부터였으며, 이식(李植, 1584~1647), 김석주(金錫胄, 1634~1684), 김창협(金昌協, 1651~1708) 등이 『당송팔대가문초』의 영향을 받아 평어를 반영한 선집류 평점비평서를 만들기도 하였다.²⁾

이러한 흐름을 이어 조선에서는 문장 선집의 차원에서 이뤄진 평점비평에서 나아가 개별 문집에 대한 평점비평이 성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신정하(申靖夏, 1680~1715)의 『서암선생집선본(恕菴先生集選本)』, 김순택(金純澤, 1714~1787)의 『지소유고(志素遺稿)』, 조귀명(趙龜命, 1693~1737)의 『건천고(乾川藁)』, 이광찬(李匡贊, 1702~1766)의 『평두남(評斗南)』,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충북소선(鐘北小選)』,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의 『청성잡기(靑城雜記)』,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 등의 산문 평점비평서가 대거 출현하게 되었다.³⁾ 특히 18세기 후반은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상호 평점비평이 성행하던 시기였다.⁴⁾ 즉지헌

사용된 부호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 한편 본문에 언어로 첨가된 하나의 텍스트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鐘北小選』에 사용된 ‘批’와 ‘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박희병,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 돌베개, 2010, 55~65면을 참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평점비평서 『연석』에 사용된 비평 방식에 의거하여 ‘批’를 ‘평어’와 동일한 용어로 볼 것이며 그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批點’이라는 용어 대신 ‘권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본고의 제2장 제2절에서 진행할 것이다. 중국과 조선의 ‘評’, ‘批’, ‘點’의 명칭과 성격을 개괄한 것은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개정증보판), 175~194면 참조.

- 2) 중국 평점비평서가 조선에 전래된 배경과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김대중,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16면 참조.
- 3) 각각의 평점비평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강민구, 『조선 후기 문학비평의 실제』, 보고사, 2010; 김경, 『李德懋 散文批評 研究: 鐘北小選, 楓石鼓篋集 所在 批評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경, 『李德懋의 『靑城雜記』 評語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제33집, 동양한문화회, 2011; 김대중, 위의 논문; 김수진, 『『乾川藁』 評點批評 再論』,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학회, 2011; 김영진, 『靑城과 靑莊館의 교유』, 『靑城雜記』, 『문헌과 해석』 제22집, 태학사, 2003b; 박희병, 앞의 책; 유정열, 『李匡贊의 批評 研究: 『評斗南』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a.

(則止軒) 유언호(兪彦鎬, 1730~1796)의 『연석(燕石)』은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한 평점비평서이다.

유언호는 당대의 저명한 문장가 두 명에게 평점비평을 부탁하였고, 그 흔적이 현전하는 『연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의 비평 행위가 반영된 평점비평서 『연석』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석』의 평점비평을 통해 조선 후기 평점비평서의 출현이 갖는 시대사적·문화사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실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유언호에 대한 연구는 널리 알려진 그의 정치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편이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1765년(영조41) 금강산 여행에 함께 했던 벗이자, 박지원의 연암협 은거 시절의 후원자로서의 유언호의 면모에 대한 논의와⁵⁾ 1787년(정조11)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연행(燕行)을 다녀온 기록인 그의 『연행록(燕行錄)』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⁶⁾가 진행된 이후 연구사적 공백기를 거쳐 최근 유언호의 생애와 교유관계 그리고 문학관의 전반을 고찰한 연구가 제출되었다.⁷⁾ 특히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유언호가 사별한 아내를 애도하며 남긴 도망문(悼亡文)에 보이는 탈관습적인 내용과 인식적 측면에 주목하여 18세기 후반 사대부 가문의 가족문화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⁸⁾ 정치사적으로도 특히 정조대의 유언호의 정치활동에 주목하는 등 최근 들어 유언호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축적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⁹⁾ 또한 초상화로 유명한 화가 이명기(李命基)가 그린 유언호의 초상화가 현존하여 조선의 화상(畫像)과 찬(讚) 연구 및 미

77면 참조. 한편, 김대중에 의하면 조선 시대 한문산문의 평점비평은 문집 간행 작업, 동인 집단 내의 회람, 대규모의 장서가의 출현, 전범의 확정과 보급 등의 의도 등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김대중, 앞의 논문, 17~19면 참조.

5)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52~69면; 김명호, 『박지원의 금강산 유람과 창작』, 『한국문화』 제7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6) 김동석, 『유언호의 연행록과 조환의 연행일기에 대한 고찰-대청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박범, 『1787년 유언호의 대청 사행단 구성과 운영』, 『한국사학보』 제76집, 고려사학회, 2019.

7) 박기성, 『則止軒 兪彦鎬 散文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a; 박기성, 『朴趾源을 통해 본 兪彦鎬』, 『동방한문학』 제74집, 동방한문학회, 2018b; 박기성, 『深遠 李惟秀와 東園 雅集』, 『한문학논집』 제52집, 근역한문학회, 2018c.

8) 박영민, 『兪彦鎬의 悼亡文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가족문화의 한 양상』, 『한국사학보』 제76집, 고려사학회, 2019.

9) 임혜련, 『정조의 배향공신 則止軒 兪彦鎬의 정치활동』, 『한국사학보』 제76집, 고려사학회, 2019.

술사 연구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¹⁰⁾

한편, 그간 진행된 유언호 문학 연구에서 『연석』의 두 평비자는 박지원과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이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듯했다. 하지만 이들이 평비자라는 정확한 근거와 비평이 행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채 추정할 뿐이었다.¹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서각에 소장된 『연석』을 주 텍스트로 삼고 새롭게 발굴된 『연석』 및 주변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석』 평점비평의 배경과 방식을 꼼꼼히 분석하여 평점비평의 주체가 박지원과 유한준임을 확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연석』 평점비평의 의미를 ‘권집’과 ‘평어’의 두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유언호의 『연석』이 18세기 조선 평점비평사의 내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박지원과 유한준의 ‘산문비평가’로서의 면모를 모색하는 하나의 통로로서도 기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II. 『연석』 평점비평의 개관

1. 『연석』 및 주변 자료

현전하는 『연석』은 2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13책 『연석』과 최근 발굴된 박철상 소장 필사본 18책 『연석』이 있다. 한편 장서각본 『연석』과 동일한 계열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1책의 필사본인 『연석승유기(燕石勝遊記)』가 있다. 여기에서는 장서각본 『연석』과 『연석승유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¹²⁾

10) 심경호, 「조선의 畫像과 贊에 관한 窺見」, 『국문학연구』 제31집, 국문학회, 2015; 이광수, 「유언호 영정 묘사도 제작연구」, 『미술문화연구』 제8집, 동서미술문화학회, 2016.

11) 박기성, 앞의 논문, 2018a와 박영민, 앞의 논문 등에서 『연석』의 평비자를 박지원과 유한준이라고 언급했으나 추정에 그쳤을 뿐이며, 박영민, 앞의 논문에서는 유한준의 평어를 유언호 작품의 일부로 오독하거나 유한준의 평어를 박지원의 평어로 잘못 인식한 경우도 확인된다.

12) 최근 박철상이 발굴하여 소개한 신자료 『연석』에 대해서는 박철상, 「燕巖 朴趾源의 『燕石』 評批」,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집(별지), 2018을 참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燕石』은 「『燕石』 18책, 『燕石續』 4책, 목록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박지원과 유언호가 주고받은 편지, 장서각본 『연석』에는 전하지 않는 유언호의 詩文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서각

장서각본 『연석』¹³⁾은 총 13책으로, 표제는 ‘燕石’인데 내제(內題)와 권수제(卷首題)가 없다. 광곽(匡郭)과 계선(界線)이 없는 종이에 10행 22자의 해서(楷書)로 필사되어 있다. 제1책의 앞표지 뒷면에 붙어 있는 별지에는 유언호의 이력과 서명(書名)의 뜻을 간략히 메모한 내용이 있다.¹⁴⁾ 『연석』은 권수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차(卷次) 표시도 없이 바로 글의 제목이 제시된다. 또한 대부분 각 작품이 끝나는 지면의 나머지는 공백으로 남겨두었고, 다음 작품은 새로운 지면에서 시작된다. 서명인 ‘연석’의 의미는 제1책의 앞표지 뒷면의 메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자신의 저작이 변변치 못하다는 겸칭이다. 『연석』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실려 있지 않지만 박지원과 유한준이 쓴 서문이 그들의 문집에 따로 전한다.¹⁵⁾

한편 기계유씨(杞溪 兪氏) 집안 인물들의 글을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후대 문헌인 『기계문헌(杞溪文獻)』 가운데 유언호의 글을 모아둔 항목에 <연석서(燕石序)>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은 전환된 단락을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유언호가 직접 쓴 글로 추정되는데, ‘연석’이라는 명칭의 유래인 송(宋)나라의 우인(愚人)에 관한 고사¹⁶⁾와 세상에서 자신의 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전환(前漢)의 양웅(揚雄)

본 『연석』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 13) 이 장서각본이 『한국문집총간』 권247에 영인되어 있다. 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연석』”은 이 장서각 소장본을 지칭한다.
- 14) “杞溪兪彦鏞官在左相, 英宗朝科, 配正宗廟庭. 字士京, 号則止軒, 貞庵閔遇洙婿, 与知守齋(兪拓基-인용자) 并称名宰. 此称燕石, 卽自謙之辭而載在荀子.”
- 15) 朴趾源, 『燕巖集』 권7, <愚夫卍序>; 兪漢雋, 『自著(著草)』, <燕石集序>; 兪漢雋, 『自著(準本)』, <止軒集序>.
- 16) 宋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燕山에서 나는 돌인 燕石을 梧臺의 동쪽에서 얻은 뒤 寶玉으로 여겨 비단으로 몇 십 겹을 싸서 보관하며 애지중지하였다. 그러다가 뒤에 周나라의 나그네가 그 돌을 보고 일반 돌과 마찬가지로 비웃은 고사가 전한다(『後漢書』 권48, <應劭列傳>). 하지만 유언호는 이 고사를 뒤집어 愚人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보물이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가 없고 자신이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지의 여부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호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 특별할 것도 없는 자신의 글들을 이렇게自编한 것을 두고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보물로 여긴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兪致雄編, 『杞溪文獻』, 富雲獎學會, 1963, 620면. “宋人得燕石, 以爲大寶, 藏以革置十重, 巾十襲, 視之者, 蓋掩目盧胡而笑焉. 夫匪其寶而寶之者, 其人, 固愚矣, 其心眞以爲可寶, 故自信而弗疑也. 自信而弗疑, 則雖象犀珠玉珍怪之物, 羅列錯置, 而莫有以易吾寶也. 蓋寶無眞贋, 惟吾所寶之如何爾. 然則安知夫寶其寶之非贋, 而匪寶而寶之, 不爲眞乎? 又安知夫匪寶而笑其寶也, 不猶以寶而笑其寶也, 不猶以寶而笑其匪寶乎? 置之不足較也. 於是取以名其稿曰燕石.”).

의 고사를 끌어와 유언호가 자신을 글을 자편(自編)하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현달하지 못하더라도 후대에 알아주길 기다리며 스스로 완상할 것이라 자위(自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연석』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310여 편의 산문으로, 1750~1794년에 걸쳐 창작된 글들이 문체별로 수록되어 있다. 그중 서(序), 제발(題跋), 제문(祭文)은 1784~1786년을 중심으로 두 시기로 나뉘 수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1책에는 1754~1782년까지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고, 제11책에는 1786년, 1791년, 1794년에 쓴 서문 세 편이 따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 『연석』은 온전한 전질(全帙)이 아닌 영본(零本)으로 보인다. 유한준이 1791년에 쓴 『연석집(燕石集)』의 서문에 따르면 ‘詩’가 546수, ‘序記’가 37편, ‘題跋銘贊說’이 45편, ‘狀誌碣’이 60편, ‘祭文哀辭’가 50편, ‘書牘’이 170편, ‘疏劄啓議’가 75편, ‘講義奏對書箋’이 37편, ‘傳史斷雜著’가 10편이라 되어 있다.¹⁸⁾ 그러나 이는 실제 『연석』에 수록된 작품 수와 다르다. 특히 시와 편지의 경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연석』에는 시가 전혀 실려 있지 않은 점, 『연석』에는 서독이 170편보다 훨씬 적은 약 30편만이 실려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서각본 『연석』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석승유기』는 『연석』과 동일한 계열로 추정되는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¹⁹⁾ 총 26장 1책으로 가철(假綴)되어 있으며 표제는 ‘燕石勝遊記(全)’이고 내제는 없다. 매 반장은 10행 22자로 어미(魚尾)가 없다. 장서인으로는 ‘宋鍾華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종화(宋鍾華,

17) “昔楊子雲，獨抱太玄，以娛後世之子雲。是誠太勞矣。我無子雲於世則，當以我爲子雲，欲玩則自玩之，欲諷則自諷之，欲可否則自可否之，何所不宜，且我之自知，孰如彼之知我歟？尙矣矣夫後世之遠哉。山齋暇日，自酌一大白，取自作，自讀而自評，又自書此，以自廣。” 兪致雄 編, 위의 책, 위의 면. 한편, 마지막 단락은 이상의 두 단락의 내용과는 별개로 박지원이 유언호에게 직접 증정한 서문으로 보인다. 『燕巖集』 권7에 수록된 <愚夫卍序>에는 없는 서문 작성 연월, 관직명이 명기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문체가 <우부초서>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선후관계 및 개작 문제는 추후 따져볼 문제로 남겨둔다.

18) 兪漢雋, 『自著(著草)』, <燕石集序>(辛亥, 1791), “族父今判中樞止軒公所著燕石集, 詩五百四十六, 序記三十七, 題跋銘贊說四十五, 狀誌碣六十, 祭文哀辭五十, 書牘百七十, 疏劄啓議七十五, 講義奏對書箋三十七, 傳史斷雜著十, 合詩文近千餘篇. 漢雋曰: “盛矣哉, 其富有之矣.” 然公道簡德清, 聰明博雅, 其言愈出而不窮, 則是集也又不知將衍而爲幾卷也.” 유한준의 『自著(準本)』 권1에는 <止軒集序>(庚戌, 1790)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序記가 39편, 書牘이 178편, 狀誌碣이 61편, 疏劄啓議가 65편 등 편수에서 미미한 오차를 보일 뿐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19) 이 자료는 김영진의 박철상, 앞의 글에 대한 토론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1866~1912)는 유언호의 사위인 송계악(宋啓樂, 1763~1790)의 11촌 손자뻘로 같은 은진 송씨 인물이다.²⁰⁾ 따라서 이 책은 은진 송씨 집안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석승유기』에 수록된 9편의 작품은 모두 『연석』에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유언호의 유기(遊記)만을 따로 모아서 편집한 책으로 보인다. 『연석승유기』를 통해서도 유언호의 유기 창작 면모를 살필 수 있으며, 이 작품들은 조선 후기 유기 문학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작품들이다. 『연석』과 대조해 보면 원문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주묵(朱墨)과 청묵(靑墨)의 평점의 양상과 평어의 필체까지도 동일하므로 같은 사람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총 9편의 작품에 대해 창작 시기와 유람 장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시기	장소
1	유선찰기(遊仙刹記)	1748년 6월 6일 ²¹⁾	경상북도 안동 선찰사
2	유주방산기(遊周房山記)	1748년	경상북도 청송 주방산
3	유내연산기(遊內延山記)	1749년 봄	경상북도 포항 내연산
4	유기성기(遊箕城記)	1757년 3월~7월 ²²⁾	평안도 평양
5	유성도기(遊成都記)	1757년 4월 29일~5월 4일	평안남도 성천군
6	유대흥산성기(遊大興山城記)	1757년 7월 24일~8월 4일	황해북도 개성시 박연리
7	심영귀루지기(尋詠歸樓址記)	1758년 3월 2일	평안도 평양 대동강
8	유용암기(遊聳巖記)	1758년 7월 25일	전라남도 화순 용암산
9	유동음산수기(遊洞陰山水記)	1763년 4월 8일~4월 21일	경기도 포천 일대

2. 『연석』 평점비평의 배경과 방식

『연석』에 사용된 평점은 권점(圈點)과 평어(評語)로 나뉘는 한편 붉은색과 푸른색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평점비평서 『연석』은 최소한 두 사람의 평점비평 행위를 추정케 한다. 따라서 『연석』의 평점비평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두 평비자의 『연석』 평점비평의 구체적인 형태를 짚어보도록 한다. 먼저

20) 宋佐彬 編, 『恩津宋氏同春堂文正公派譜』, 同春堂文正公派譜所, 1994, 65~66면; 375면.

21) 이하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22) <遊箕城記>는 3월 27일, 5월 26일, 5월 30일, 6월 14일, 6월 26일, 7월 6일 등 날짜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箕城 주변에서 잠깐씩 여행한 기록을 합쳐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편지가 주목된다.

글을 평비(評批)하는 일을 이제야 마치고 삼가 돌려 드립니다. **붉은색의 평**은 김성탄(金聖嘆)과 매우 흡사하니 아주 절묘합니다. 저의 둔한 근기(根機)로는 전집(全集)의 깊고 오묘한 곳을 엿보기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얼마간 우열이 있지 만 주옥의 결이라 제 자신이 못났음을 절로 깨닫게 되고 소진(蘇秦)의 시대엔 실로 장의(張儀)의 말이 부끄러우므로 처음에는 이 두 가지 경계를 범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송독(誦讀)을 할수록 애모(愛慕)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애모하는 마음이 지극해지니 생각이 싹터서 마침내 점차 용의 눈동자를 점으로 더럽히고 부처의 머리에 똥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도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책을 더럽혔을 뿐입니다.²³⁾ (밑줄 및 볼드체 -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유한준이 유언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부탁받은 평점비평 작업을 마치고 책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검사를 늘어놓았다. 중간에 나오는 구절은 진(晉)나라의 왕제(王濟)가 생질(甥姪)인 위개(衛玠)를 두고 주옥같은 사람 옆이라 자신의 못난 모습이 절로 드러난다고 탄식했다는 『진서(晉書)』, <위개열전(衛玠列傳)> 중의 구절과, 장의(張儀)가 소진(蘇秦)의 시대에 자신은 감히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는 『사기(史記)』, <장의열전(張儀列傳)> 중의 구절을 가져온 것이다. 이것을 경계로 삼아 함부로 평비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뛰어난 글을 읽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평비를 남겼는데 이것이 글에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내용이다.

이 편지에 앞서 1791년경 유언호는 유한준에게 평비를 부탁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었으니,²⁴⁾ 유한준은 최소 1791년부터 『연석』의 평점비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²⁵⁾ 밑줄 친 부분의 “붉은색의 평”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23) 兪漢雋, 『自著』 권12, <上止軒書>, “文字評批之役, 今始卒業, 肅此還納. 蓋紅筆之評, 酷似聖嘆, 妙絕極矣. 姪之鈍根, 固不足以窺見全集之蘊奧. 假使略有涇渭, 珠玉之側, 自覺形穢, 蘇季之世, 實慚儀言, 故初意勿犯二戒矣. 諷讀久而愛慕生, 愛慕極而意思萌, 遂駭駭澆點於龍睛, 鋪糞於佛頭, 而實則渠何能識, 只污卷耳.” (兪漢雋, 『著庵集』, 驪江出版社, 1987, 326면.)

24) 兪彦鎬, 『燕石』 제3책, <與汝成(漢炘)書>(7), “至於卷尾之題, 曾已有請, 而不敢必者, 雖其推引過實, 媿無以堪之, 而特其文字典雅適勁, 汚牆之文繡, 土缶之龍章, 光彩愈炫. 左太冲三都賦, 得玄晏序然後始重於當世, 古今奚異哉? 其餘評批, 從當次第點閱, 可以消遣幾許長日.”

25) 뿐만 아니라 유한준은 직접 평어에서 자신의 나이를 60이라 명기하고 있으므로 유한준의 『연석』 평점비평은 1791년 무렵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兪彦鎬, 『燕石』 제3책, <書錄命

유한준은 주묵(朱墨)의 평점비평이 이미 행해진 『연석』을 받아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해당 평비를 명말청초 중국 소설 평점비평의 대가인 김성탄(金聖嘆, 1608~1661)에 필적한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⁶⁾ 이 편지는 곧 『연석』에 보이는 주묵과 청묵(靑墨) 가운데 청묵의 주인이 유한준임을 방증한다.²⁷⁾

유언호는 유한준의 삼종숙(三從叔)이다. 즉 유언호의 증조부인 유철(兪徹, 1606~1671)이 유한준의 고조부인 유황(兪樞, 1599~1655)과 형제지간이다. 현재 전하는 유한준의 문집과 유언호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서로의 문집에 서문을 써주고 상대방의 글을 비평하고 토론하는 등 문학적으로도, 벗으로도 가까웠다. 『연석』에 수록된 30편의 편지 가운데 유언호가 유한준에게 보낸 편지가 11편이나 되는데,²⁸⁾ 예를 들어 유언호는 유한준의 글을 읽고 보낸 편지에서 유한준의 문장에서 한유(韓愈, 768~824)의 의(意)와 법(法)을 간취할 수 있으니 문장으로서 충분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²⁹⁾ 또 유언호는 1784년에 자찬묘지명인 <자지(自誌)>를 쓰고 나서 자신의 사후에 이 글을 마무리해 줄 것을 유한준에게 부탁했으며, 이 부탁에 따라 유한준은 유언호가 세상을 떠난 후 <자지>에 덧붙이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³⁰⁾ 앞서 언급하였듯 유언호는 유한준에게 평비를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유한준은 성실히 평점비평 작업을 하여 되돌려 주는 등 둘 사이의 문학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³¹⁾

諸紙後>, ㉠(眉批): “故生六十年, 未嘗一叩星命家.” *이하 붉은색 평어는 “㉠”로, 푸른색 평어는 “㉡”으로 표시한다.

- 26) 18세기 이후에는 조선에서도 金聖嘆 평비본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한준의 아들 兪晩柱(1755~1788)는 20대 때 김성탄의 평비본 『水滸傳』을 접하고 비평적 독서 활동을 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김하라, 『兪晩柱의 『水滸傳』 讀法』, 『한국한문학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b 참조.
- 27) 이 편지에 대해서는 박철상, 앞의 글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여기서도 유한준 비평의 중요한 방증자료로 소개되었다.
- 28) 다만 1787년에서 1792년까지의 짧은 기간에 왕래한 서신에 불과하여 이 시기 전후의 유한준과 유언호의 교류관계를 엿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편지글을 통한 두 인물의 교류에 대한 내용은 박기성, 앞의 논문, 2018a 참조.
- 29) 兪彦鎬, 『燕石』 제5권, <與汝成(漢吳)書>, “華稿, 數日玩味, 下二作, 尤好. 意與法, 皆從昌黎出來, 文如是, 足矣. 毋更戛戛以弊吾可惜精神也. 看了奉完, 溯而上之, 以次見投, 俾窺其百官倉廩之全也.”
- 30) 兪漢雋, 『自著(準本)』 권2, <族父領敦寧忠文公自誌後追記>(丙辰, 1796).
- 31) 그 밖에 유한준이 유언호의 고향인 안성의 집 則止軒에 부친 <則止軒記>, 유언호의 문집에 부친 서문, 유언호가 1787년 동지부사로 연행을 떠날 때 써 준 송서(<送族父止軒相公赴燕序>),

한편, 유한준이 김성탄에 빗대었던 주목의 평비자는 『연석』의 서문을 쓴 또 다른 문인인 박지원으로 추정된다. 1775년 12월 박지원은 유언호 문집의 서문인 <우부초서>를 써주었으며, 주목의 평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박지원의 것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확인된다. 특히 주목의 평어에는 박지원이 쓴 글에 보이는 구절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곧 박지원이 해당 평어를 썼음을 방증한다. 한편, 이는 평자가 자신의 글을 평어에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여 대상 작품의 주제나 작가의 의견에 대한 공감 혹은 이견(異見)을 제시하는 독특한 비평 행위라는 점에서 당대 평점비평의 특징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²⁾ 또한 주목의 평어 가운데 연암골의 금학동(琴鶴洞) 별서에서 유언호의 글을 읽는 정황을 기록한 내용이 보이는데,³³⁾ 박지원이 1777년 겨울에서 1778년경 사이에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의 화를 피하기 위해 전동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연암골에 들어가 새 터전을 마련했던 시기의 모습과 맞아떨어진다. 이때는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부임해 있던 유언호가 박지원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시기이기도 하다.³⁴⁾

박지원은 젊었을 적부터 유언호와 가깝게 지냈는데, 특히 금강산 유람을 계기로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갔던 것으로 보인다.³⁵⁾ 이들은 금강산 유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 서소문 밖에 있던 박지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며,³⁶⁾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777년에 개성유수 유언호는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글을 연암협으로 거처를 옮긴 박지원에게 보내기도 했다.³⁷⁾ 이 시기 유언호는

유언호의 초상화에 쓴 찬(<像贊>), <祭文> 등의 글이 전한다.

32) 이에 해당하는 평어는 <能安窩記>의 尾批와 <題金季賢(獻材)所贈挹翠軒集後>의 尾批이다. 한편, 『燕石勝遊記』에 수록된 <遊成都記>의 미비에서도 박지원이 자신의 글을 인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3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33) 兪彦鎬, 『燕石』 제13책, <諸末傳>(庚辰, 1760), ④(尾批): “王世基, 夜彈步虛辭, 嘗有風氣冷然, 燈影倏翕, 自明自滅云. 墅鶴夜聽, 一讀諸末傳, 孤絕四鄰, 燭焰忽成紫虹, 搖蕩不定, 風來肅然, 臆櫺鳴戛, 余亦悄然, 而恐掩卷而眠也. 朝起, 雪上屐蹄如盤.”

34) 연암협에 새 터전을 마련했던 이 시기에 한동안 박지원은 송도에 있던 梁浩孟의 琴鶴洞 별장에 머물며 송도의 청년 학자들과 교류하곤 했으며, 1777년 음력 6월에 개성유수에 발탁되어 그 해 겨울에 개성의 입소에 부임했던 유언호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김명호, 앞의 책, 67~69면. 박지원이 쓴 <琴鶴洞別墅小集記>과 유언호가 쓴 <西京小集記>에 의하면 박지원 자신은 적어도 1777년 음력 10월경에는 연암협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35)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38면.

36) 朴趾源, 『燕巖集』 권3, <琴鶴洞別墅小集記>, “小集似灌泉, 而吾輩幾時俱白頭灌泉, 不佞漢陽白門舊宅, 而歸白楓巖, 小集於此.”

37) 朴趾源, 『燕巖集』 권3, <謝留守送惠內宣二橋帖>. 한편 이 글은 동양문고본 『연암집』 중 삭제

박지원의 형수의 장례를 도와주고 명(銘)을 지어주기도 했다.³⁸⁾ 이들의 관계는 박지원의 평점비평이 행해진 시기로 추정되는 1778년 이후에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이며, 그 문학적 교류의 일단이 <서경소집기(西京小集記)>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의 시문을 꺼내어 읊조리고 그림을 그리며 ‘신교(神交)’를 맺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³⁹⁾ 이후 박지원은 안의현감의 임기가 끝나갈 시점인 1796년 3월경 유언호의 별세 소식을 듣고 면결(面訣)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기도 했다. 『과정록(過庭錄)』에 의하면 박지원은 만년에 유언호의 비문을 짓고 싶었지만 병환이 깊어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처럼 박지원은 <우부초서>를 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석』의 평점비평을 시작하였고, 이 작업은 유언호가 유한준에게 박지원의 평점비평이 실린 『연석』을 보여준 시기인 1791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다만, 박지원의 평점비평 행위는 『연석』의 글 가운데 유언호가 20대 후반에 지은 글에서부터 40대 후반의 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1780년 박지원이 연행을 떠나기 전까지의 시기, 즉 연암협에서 지내던 시기에 중점적으로 평점비평을 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유한준의 것으로 보이는 청목의 평점은 유언호의 만년인 1794년~1795년 무렵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석』의 주목은 박지원의 것, 청목은 유한준의 것임을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연석』 텍스트에 남아 있는 평점 자체만 따져봤을 때도 그 선후관계가 추정되는데, 청목이 항상 주목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주목이 청목보다

지시 頭籤이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동양문고본 『연암집』에는 많은 附箋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록 작품의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많다. 특히 『熱河日記』와 『課農小抄』를 제외한 일반 시문 가운데 편지에 국한되어 발견된다(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280~284면).

38) 朴趾源, 『燕巖集』 권2, <伯嫂恭人李氏墓誌銘>, “趾源求銘於其友人奎章閣直提學俞彥鎬. 彥鎬方留守中京, 地接燕岩, 爲助葬且銘之.”

39) 俞彥鎬, 『燕石』 제2책, <西京小集記>. 박지원은 이 글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琴鶴洞別墅小集記>를 남겼다. <서경소집기>에 대한 내용은 본고의 제3장 제1절 참조.

40)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앞의 책, 164~165면.

41) 후술하겠지만 박지원의 『연석』 평점비평은 박지원이 연암협에서 지낼 당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특히 제6책~제8책의 서지적 특성과 필체 등이 다른 책들과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1780년 후반과 1790년의 작품들에 이뤄진 평점비평 가운데 박지원의 朱墨으로 보기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먼저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어도 마찬가지로이다. 주목의 평어에 청목의 권점이 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목의 평어 뒤에 청목의 평어가 이어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모두 평점의 선후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연석』에는 권점과 평어 이외에도 주목으로 원본 글자 간에 한 칸이 띄워져 있는 경우 “|”와 같은 표시를 하여 수정할 것을 명시한 것, 주목으로 글자를 교정한 흔적, 주목의 밑줄, 청목으로 작품 제목 위에 하나에서 세 개까지의 원(○)을 표시한 것 등의 흔적 역시 평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⁴²⁾

이상에서 『연석』의 평비자를 확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점비평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권점은 방점(旁點), 원권(圓圈), 첨권(尖圈)의 세 종류가 사용되었는데, 방점, 원권, 첨권의 순서대로 그 빈도수가 높다. 조선 문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명대(明代)의 대표적인 평점비평서인 모곤의 『당송팔대가문초』의 범례(凡例)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의 세 종류의 권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는 원권을, 다음으로 아름다운 곳에는 첨권을, 그다음으로 아름다운 곳에는 방점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으며,⁴³⁾ 박지원과 유한준 역시 이와 같은 층위의 세 권점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의 권점은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는 편장(篇章) 구성 같은 비교적 큰 틀보다도 구법(句法)과 자법(字法)의 수준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으며, 수사의 측면에서는 중심 제재가 부각되는 지점이나 반복·대구로 인해 리듬이 형성되는 지점과 같이 명확히 분석이 가능한 곳에 행해진 경우가 많다. 특히 원권의 경우에는 방점이나 첨권과 달리 이어지는 긴 문장이나 짧은 구절뿐만 아니라 한 글자에 대해 자안(字眼)을 표시하거나,⁴⁴⁾ 원권을 두 개씩 사용하여 평비자 자신의 소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⁴⁵⁾

42) 다만 『연석』의 제5책에 약 10여 페이지의 여백이 끼워져 있는 점, 제6책과 제7책에만 매 장의 좌측에 면수가 표시되어 있고, 字, 講, 名, 號에 朱墨의 밑줄이 쳐져 있는 점, 붉은색으로 보이는 傍批가 있지만 갈색에 가까운 색감으로 다른 책의 朱墨과 다르며, 필체도 다르다는 점, 제8책에만 보이는 朱墨의 교정 흔적[“ ”] 등의 사실은 두 평비자의 평점을 받은 이후 후인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3) 茅坤, 『唐宋八大家文抄』, <凡例>.

44) 俞彦鎬, 『燕石』 제2책, <悅樂齋記>의 悅과 樂에 사용된 원권. 『燕石』 제10책, <因大司成疏學規通變議>의 實에 사용된 원권. 두 경우 모두 유한준의 것이며, 해당 원권이 字眼이 되는 이유가 眉批와 尾批에 기술되어 있다.

45) 俞彦鎬, 『燕石』 제1책, <林居四訣序>의 유한준의 원권[兒喜其抓, 母利其獲, 兩相昵呢], 『燕石』 제13책, <諸末傳>의 박지원의 尾批에 대한 유한준의 원권[肩踏如盤]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평어는 그 위치에 따라 제하비(題下批), 수비(首批), 방비(傍批), 미비(眉批), 미비(尾批)로 나뉜다. 『연석』에서 제하비는 한 번 사용되었을 뿐이며,⁴⁶⁾ 나머지는 모두 수비, 방비, 미비(眉批), 미비(尾批)이다. 수비는 편머리에 붙어 있는 것으로 미비(眉批)와는 달리 작품 전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방비는 특정 구절의 오른쪽에 짝막한 길이로 적혀 있으며, 미비(眉批)는 특정 구절 및 단락에 대한 권점이 있는 곳의 상단 여백에 적혀 있다.⁴⁷⁾ 미비(尾批)는 매 작품이 끝나는 면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⁴⁸⁾ 물론 평점이 아예 없는 글도 있다.⁴⁹⁾

평어는 크게 ① 글의 특징을 서술하는 경우, ② 평자의 개인적인 감회를 서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①은 글의 주제, 화두, 형식, 표현상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관적 혹은 심미적인 평가로 구체화할 수 있다. 또 ②는 평자의 주관적 감회나 착상에 의거하여 ②-① 해당 글에 연관된 작품과 작가를 제시하는 경우, ②-② 평비자 자신의 글을 재인용하는 경우, ②-③ 평비자가 알고 있는 사실 정보, 일화를 부연 서술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①은 작품 감상에 입각하여 작품의 예술적 특성이나 직관적인 감상을 표현하는 경우로, 함축적인 비평용어들을 사용하여 작품의 예술적인 풍격을 드러내어 주거나 풍부하게 해 준다. 이 같은 방식이 전통적인 평점비평서에서부터 발견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평자의 개인적인 감회를 서술하는 ②의 경우에는 평점비평서 사이에서도 다양한 양상이 포착된다.

특히 ②-①은 박지원과 유한준의 평어 모두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자 ②의

46) 俞彥鎬, 『燕石』 제2책, <讀耕齋記>, ㉞(題下批): “名篇”

47) 朱子의 <武夷權歌>를 본떠 경기도 안성에 있는 精舍 주변의 풍광을 묘사한 작품인 俞彥鎬, 『燕石』 제2책, <同安精舍記>의 경우 유한준은 “해 지는 산 속에 들어가는 듯이[如入落影山中]”라는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제2곡에서 제8곡의 상단에 나열해 놓는 독특한 방식으로 眉批를 쓰기도 하였다.

48) 『연석』의 평점비평에서 首批와 尾批는 그 위치만 다를 뿐 성격은 유사하다.

49) 예를 들어 『연석』에 수록된 총 310편의 작품 가운데 평점이 없는 작품은 104편으로 주로 제10책의 疏筭, 제11책의 論, 제12책의 議 작품에는 거의 평점비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10책에 수록된 작품들의 창작연도는 1766~1783년, 제11책에 수록된 작품들의 창작연도는 1776~1795년, 제12책에 수록된 작품들의 창작연도는 1790년 중반 대이다. 이들 작품에 평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하는 작품들을 면밀히 살핀 후 따져볼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평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전대(前代) 문인의 문장에서 표현 상 유사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특정 작품이나 작가, 구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또는 특정 구절을 변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방식들은 모곤의 『당송팔대가문초』에서부터 그 단초가 확인된다.⁵⁰⁾ 그런데 『연석』에서는 조선 시대 선배 문인 및 당대 문인으로 인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유한준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송시열(宋時烈, 1607~1689),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등의 글을 인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언호가 벗인 박종식(朴宗植, 1729~1764)과 홍상찬(洪相纘, 1731~1798)의 금강산 여행에 부친 서문의 미비(尾批)에서 유한준은 “삼연옹(三淵翁)이 유씨(兪氏)와 이씨(李氏)에게 보낸 송서(送序)와 합쳐서 읽어볼 만하다.”⁵¹⁾라고 하여 유언호의 글을 읽는 방법으로서 김창흡의 서문을 함께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⁵²⁾ ㉒-㉓는 동시기 다른 평점비평서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자 『연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박지원의 평어에서 돋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㉒-㉓은 일종의 주석의 역할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박지원과 유한준의 『연석』 평점비평의 배경과 방식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석』 평점비평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50) 모곤은 『당송팔대가문초』의 평점비평을 행할 때, 평어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비평 대상 텍스트에 관한 주변 텍스트들을 당송팔가 내부에서 상호 참조하였다. 한 예로 蘇軾의 <平王論>의 題下批에서 “이 글은 韓愈의 <諱辯>과 같아 蘇氏의 본색이 아니니, 이는 분명 宋나라가 南으로 건너간 데 대한 한 斷案이 된다.[此文, 類韓諱辯, 非蘇氏本色, 分明是宋南渡一斷案.]”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51) 兪彦鎬, 『燕石』 제1책, <送朴仲固、洪述祖(相纘)遊楓嶽序>, ㉒(尾批): “可與淵翁送兪、李序合看.” 여기서 언급한 金昌翕의 글은 각각 <送兪君四之平康序>와 <贈李喜靖序>를 말한다. 金昌翕, 『三淵集』 拾遺 권23.

52) 朴宗植은 유언호의 형과 함께 李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洪相纘은 외조부가 兪拓基로, 유척기는 유언호의 종숙부가 된다. 이들은 모두 유언호와 유년기 때부터 절친했던 인물들로 보인다.

III. 『연석』 평점비평의 의미

1. 권점에 나타난 대화적 관계

평점비평 연구에서 권점만을 분석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평어와는 달리 권점은 기호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권점이 문면의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방비(傍批)나 미비(眉批)와 조응하는 경우에는 평어를 통해 권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권점들만 남아 있는 곳은 평비자와 작가의 사적인 관계나 그들이 공유하는 시대적 맥락을 알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독자로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권점을 단순한 인상비평이 아닌 독특한 비평 행위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유언호, 박지원, 유한준이 공유하는 공통된 당대의 문학적 미의식, 가치관, 지향점 등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⁵³⁾ 또한 권점은 본문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본문의 일부로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평어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작품과의 의미 작용을 만들어 낸다. 원문과 평점비평 텍스트를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선행한 다음, 텍스트 수용의 측면에서 이들을 겹쳐 읽어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독자의 입장에서는 ‘유언호-박지원-유한준’의 세 시각이 포개어진 텍스트를 접함으로써 심층적인 작품 이해로 나아갈 계기가 마련된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 절에서는 유언호의 텍스트에 수행된 권점을 통해 그간 문학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로만 바라보았던 박지원과 유한준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앞서 『연석』 평점비평의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한준은 박지원이 평점비평을 한 『연석』을 받아보았다. 이는 곧 유한준의 평점비평이 ‘박지원이 읽은 『연석』 텍스트’ 위에서 수행되었으며, 다시 말해 박지원의 평점비평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박지원과 유한준의 권점이 행해진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들의

53) 李德懋의 『鐘北小選』의 권점 분석에서 원권과 첨권, 방점의 세 기호가 어우러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중북소선』의 평점비평의 경우 박지원과 이덕무의 “특별한 존재관련”이 전제되어 있다. 『연석』의 작가와 평비자의 관계가 『중북소선』에서의 관계처럼 긴밀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북소선』의 평점비평에 보이는 평비자/작자의 “대화적 관계”는 『연석』의 평점비평에서의 두 평비자와 작자의 관계, 그리고 두 평비자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는 데 시사점을 마련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책, 17~18면; 68~74면 참조.

권점이 겹쳐 있는 작품들 가운데 유언호가 박지원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다룬 글을 보면 유한준이 의식적으로 특정 부분에서 권점을 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흥미롭다. 박지원의 방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해당 글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ㄱ) 내가 일찍이 소장공(蘇長公, 蘇軾)이 해염승수도(海鹽丞睡圖, 해염현(海鹽縣)의 승(丞)이 잠을 자는 그림)에 쓴 제어(題語)⁵⁴를 읽고서, 객과 주인을 책망하는 세속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망연자실하여 사소한 예법에 악착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해염현의 승이 객보다 먼저 잠에 들자 객이 승을 따라 잠에 들었는데, 잠들고서는 깰 줄 몰랐고 깨어나서는 잠들었는지를 묻지 않아, 깨어서는 곧 혼자 떠나가고 잠자는 이는 여전히 몰랐다는 것은 ‘무심(無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ㄴ) 나는 명을 받고 개성(開城)으로 오게 되었는데, 나의 벗 박미중(朴美中)이 연암에 새로 지은 집과의 거리가 삼십 리를 넘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다. 미중이 출입할 때마다 ① 번번이 부성(府城)을 지나가면서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 또한 내게 알리기를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공무의 여가에 혼자 앉아 있노라니 풍채가 뛰어난 손님 하나가 들어오는데 바로 미중이었다. ② 서로 마주보고 몹시 기뻐하며 곧장 화로에 둘러앉아 난회(煖會)를 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각자 지은 시문을 꺼내놓고 목청을 높여 읊으니 소리의 기세가 굳세고 시원하였다. 얼마 뒤에 종이를 주고서 신수목석을 그리게 하니 맑게 운치가 있어 ③ 완전히 예전에 함께 마하연을 유람하던 때의 일만 같았다. ④ <이윽고 조각달이 막 떠올라 숲 그림자가 어른거리자 함께 일어나 뜰 안을 거닐다 문에까지 나가 배웅을 하였다.> ⑤ 바야흐로 만나 의기가 투합하였고 서로 마음이 합하였음에 스투르 격이 사라졌으니 ⑥ <나는 알지 못하겠다. 누가 나인지, 누가 미중인지. 어디가 달

54) 해염승수도에 쓴 제어(題語): 南宋의 화가인 趙孟堅(1199~1264)이 해당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그리고 제사를 지은 것과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元代의 姚桐壽가 엮은 필기집인 『樂郊私語』에 해당 내용이 보인다. 특히 조맹건의 제사에 언급된 “足以箴世之責望賓主者”라는 말이 유언호가 인용한 말[“以謂世俗之責望賓主者, 於此可以茫然自失, 而不復知嚮觀苛禮之爲何物也.”]과 유사하다. 姚桐壽, 『樂郊私語』, “相傳紹興間, 有海鹽丞, 簡傲不羈, 志輕一世. 嘗謁一鄉大夫, 主人偶遲遲而出, 丞故好睡, 比主人出, 則丞已鼾聲如雷矣. 主人以客睡, 不敢呼, 亦復就睡. 及丞覺, 亦以主睡, 不敢呼, 更復就睡如初. 究之, 主客更相臥醒, 至日沒, 丞起而去, 竟不交一言. 趙子固(趙孟堅-인용자)愛其事, 爲作圖, 紀其說于上, 置之座右, 曰: ‘此二人, 大有華胥風氣, 足以箴世之責望賓主者.’”

과 돼치가 뛰노는 현암 마을인지, 어디가 죽(執)을 늘어 세워 놓은 관사인지.>

저 해염현의 승과 객이 오동나무 안석에 기대어 멍하니 있으니 어찌 신교(神交)가 아니겠는가?》(볼드 및 밑줄 - 인용자)

위의 인용문의 (ㄱ)은 <서경소집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ㄴ)은 글의 후반부로 유언호가 1777년 경 개경유수로 있던 자신의 관사에 놀러온 박지원과의 추억을 회상한 내용이다. 유언호는 (ㄱ)에서와 같이 세속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과 객’의 관계를 허물었던 중국의 고사를 가져와 이를 ‘無心’함으로 해석함으로써 후반부에 서술한 자신의 경험과 조응시키고자 했다. 인용문에서 생략된 부분에서는 악정구(樂正裘), 목중(牧仲)과 맹헌자(孟獻子)의 사귄, 소순(蘇洵)과 한기(韓琦), 구양수(歐陽修)의 중앙절 모임, 왕희지(王羲之)와 대규(戴逵), 범식(范式)과 원백(元伯) 등의 사례를 열거하여 진정한 망형지교(忘形之交)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⁵⁶⁾ 개성 관아의 주인인 유언호와 객인 박지원이 서로에게 가졌던 ‘無心’함은 오랜만에 만난 모임을 통해 ‘心物俱忘’의 신교(神交)로 발현된 것이었다.

(ㄴ)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박지원은 자신과 유언호의 만남을 생생하게 표현한 대목 전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한준도 마찬가지로 이 대목의 대부분에 권점을 찍었는데 ①~③의 부분에만은 권점을 찍지 않았다. 이것은 ①~③의 내용이 오로지 박지원만 공감할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의 유언호가 관사에 있는 걸 알면서도 지나친 사람이 박지원이었고, ②의 화로에 앉아 술을 마시며 시를 수창한 것도 박지

55) 俞彥鎬, 『燕石』 제2책, <京小集記>, “予嘗讀蘇長公題海塩丞睡圖語。以謂世俗之責賓賓主者, 於此可以茫然自失, 而不復知齷齪苛禮之爲何物也。雖然, 丞之先客而睡, 客之從丞而睡, 睡不知醒, 醒不問睡, 醒便自去, 睡仍不知者, 所貴乎無心也。…… 予受命以來西都, 去吾友朴美仲燕巖新築, 不三十里而近也。美仲出入, 輒道府城而不以聞予, 予亦不强之。公餘適孤坐, 有客頹然入戶, 乃美仲也。相見歡甚, 仍圍爐作煖會, 酒酣, 各出其所爲詩文, 引喉高詠, 聲氣適暢, 已又授棧, 作山水木石, 蕭然有致, 宛是昔年同遊摩訶衍時事。旣而纖月初上, 林影依微, 相與起步中庭, 送至于門。方其邂逅相得也, 犁然有會, 泯然無間, 不知孰爲予歟, 孰爲美仲歟, 孰爲燕巖鷄豚之社歟, 孰爲分司列戟之門歟。彼丞與客之據梧嗒然, 奚特爲神交也哉。”

56) 俞彥鎬, 『燕石』 제2책, <京小集記>, “昔樂正裘、牧仲, 得與孟獻子友, 以其不有獻子之家也。然是猶未達於道者, 苟其胸中無物, 則初奚有有與不有之可言哉? 故達人之於人也, 無貴賤也, 無遠近也, 無離合也。蘇明允以布韋, 與韓、歐之重陽會而不爲屈, 王子猷雪夜訪安道, 與盡而回棹而不爲秦, 范巨卿不見元伯二年而不爲薄, 古所稱忘形爾汝之交, 皆是道也。”

원이었으며 ③의 1765년 가을에 금강산 마하연에 함께 갔던 이도 박지원이기에 철저히 제3자인 유한준은 해당 부분을 건너뛰는 것이다. 대신에 유한준은 구체적인 장면 묘사에 해당하는 곳에 권점을 치고, 특히 두 사람이 산책하며 헤어질 때의 분위기를 운치 있게 표현하면서도 물아일체라는 글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마지막 구절[④]에 방점을 치고 있다. 특히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6자, 4자의 구절[㉔]이 반복되고 이어서 네 차례의 동일한 “孰爲~歟” 구문[㉕]이 반복되면서 짙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박지원의 권점은 유언호와의 작품 내적 연관관계를 통한 대화적 지평을 만들어 내고, 유한준의 권점은 박지원과 유언호의 대화를 다시 음미하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박지원이 평점비평을 한 대다수의 작품에 유한준 역시 권점을 쳤는데, 박지원과 유한준의 권점이 함께 쳐져 있는 작품 66편 중 유한준이 박지원과 전혀 다른 곳에 권점을 친 작품은 네 작품이다.⁵⁷⁾ 박지원의 권점이 선행한 곳에 부기된 유한준의 미비(尾批)나 방비(傍批), 유한준이 박지원의 권점 오른편에 다시 권점을 친 행위 등은 박지원의 견해에 대한 동의 혹은 보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유한준은 박지원의 평어를 하나의 비평 텍스트로 받아들이고 권점을 치기도 하였다. 권점이 갖는 대화적 지평은 바로 이런 데서도 확인된다. 박지원의 주장이 담긴 평어에 대한 유한준의 권점을 통한 즉각적인 반응은 문학적 대화의 시도이자 그 자체로 두 사람이 만든 또 하나의 비평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유언호의 종숙부인 문익공(文翼公) 유척기(俞拓基, 1691~1767)의 유사(遺事)에 쓴 박지원의 미비(尾批)와 <제말전(諸末傳)>을 읽고 쓴 박지원의 미비(尾批)에서 발견된다. 전자는 박지원이 알고 있던 유척기의 생전의 모습과 그에 관한 세 개의 에피소드이고⁵⁸⁾ 후자는 박지원이 <제말전>을 읽었을 당시의 생생한 감회를 서술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제말전>의 경우를 살펴보자. 유한준의 권점을 반영한 박지원의 미비(尾批)를 제시하면 아래

57) <贈金丈士修序>, <李伯潤遺唾序>, <送尹伯常遊四郡序>, <從叔父文翼公遺事> 등의 작품에서 확인된다. 서로 권점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의견대립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작품들이 ‘送序’, ‘遺事’ 즉 특정 인물을 소재로 한 글이라는 점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유언호의 서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평가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58) 俞彦鎬, 『燕石』 제9책, <從叔父文翼公遺事>(己丑, 1769)의 ㉔(尾批) 참조.

와 같다.

왕세기(王世基)가 밤에 거문고 곡조 <보허사(步虛辭)>를 연주하자 찬 기운이 돌더니 등 그림자가 갑자기 저절로 밝았다 저절로 사그라졌다고 한다. 금학동 별서의 밤 창가에서 <제말전>을 한 번 읽으니 사방은 아주 고요해지고 촛불은 문득 자칫빛 무지개가 되어 계속 흔들렸다. 바람이 스 불어오니 창틀이 울어대고 나도 오싹하니 두려워 책을 덮고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 위의 **호랑이 발자국이 소반만 했다.**⁵⁹⁾ (볼드체 - 인용자)

연암협에 은거하며 지내던 시기에 박지원은 금학동 별서에서 유언호가 쓴 <제말전>을 읽고 위와 같은 평어를 남겼다. 원래 임진왜란 때 의병장 광재우(郭再祐, 1552~1617)와 함께 이름을 알린 제말(諸末) 장수의 일화는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약천집(藥泉集)』에 전하는 내용으로,⁶⁰⁾ 성주에서 정석유(鄭錫儒, 1689~1756)라는 사람이 제말의 혼령을 보고 그의 사적을 정리한 일화가 주된 내용이다. 『열하일기(熱河日記)』 <피서록(避暑錄)>에도 유사한 내용이 전한다.⁶¹⁾ 박지원은 왕세기가 <보허사>를 연주하자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는 고사를 예로 들어 자신이 <제말전>을 읽었을 때의 오싹한 분위기를 모든 감각적 묘사를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다음날 아침에 발견한 ‘눈 위의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라는 이미지에 <제말전> 전체의 감상을 응축해내었다. 하나의 소품문과 같은 이 평어는 <제말전>의 내용을 언급한 것도, 구법을 묘사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제말전>을 읽고 난 자신의 느낌만을 기술하였다. 유한준 역시 바로 이 지점들을 통해 여운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마지막에 감상이 집약된 선명한 호랑이 발자국의 이미지에 인용문의 볼드체로 표시한 곳과 같이 원권을 두 번씩 쳐서 강조함으로써 박지원의 평어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권점에 나타난 대화적 관계는 박지원과 유한준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박지원과 유한준의 대립적 관계는 젊은

59) 俞彥鎬, 『燕石』 제13책, <諸末傳>(庚辰, 1760), “王世基, 夜彈步虛辭, 嘗有風氣冷然, 燈影倏翕, 自明白滅云. 聖鶴夜隨, 一讀諸末傳, 孤絕四鄰, 燭焰忽成紫虹, 搖蕩不定, 風來肅然, 牕櫺鳴戛, 余亦悄然, 而恐掩卷而眠也. 朝起, 雪上屐跡如盤.”

60) 南九萬, 『藥泉集』 권29, 雜著, <嶺南雜錄>.

61) 박지원 지음,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3, 돌베개, 2009, 108~111면 참조.

시절 박지원이 유한준의 문학관을 비판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노호지고(虜號之稿)’ 비방 사건과 묘자리 소송이라는 ‘두 사건’의 중심에 유한준이 놓이게 됨으로써 부각되어왔다.⁶²⁾ 이 문제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박지원의 편지와 『과정록』이라는 일방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는 점과 유한준의 문학관이 박지원이 비판한 것과 같이 ‘의고적’인 병폐를 답습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즉, 유한준도 ‘法古’와 ‘創新’을 아우르며 문학의 독자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데로 나아가되 만년에는 도학을 수용하여 정주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하는 것이다.⁶³⁾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해명 방식은 대체로 유한준의 문학관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유한준 문학관의 객관적 실상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그들의 문학적 관련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살펴본 유한준의 박지원의 평점비평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방식은 이들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유한준은 『연석』에 평점비평을 하기 이전인 1785~1787년경에 지속해서 박지원의 글을 읽고 평가했으며,⁶⁴⁾ 박지원도 부인에게 쓴 도망시(悼亡詩)를 유한준에게 보낸 바 있다.⁶⁵⁾ 요컨대 유한준이 젊었을 적에 박지원의 비판에 유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두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그들의 문학적 교유는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발전해갔으리라 생각된다.

2. 평어에 나타난 평비자의 ‘서명’

『연석』의 평어가 작품에 즉한 문예 비평을 넘어서 새로운 비평의 지평으로 확장되는 특징적인 양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비자가 자신을 평어에

62) 김명호, 『朴趾源과 俞漢雋』,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81~116면. 박지원이 유한준의 문장을 비판한 내용은 <答蒼厓>(1)(『燕巖集』 권5)을 참고.

63)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유동제, 『『文訣』의 創作論과 그 文論史의 意義』, 『한국한문학연구』 제38집, 한국한문학회, 2006; 박경남, 『俞漢雋·朴胤源의 도문분리 논쟁과 俞漢雋의 各道其道論』, 『한국한문학연구』 제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박경남, 『俞漢雋의 道文分離論과 散文 세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를 참조.

64) 俞晚柱 『欽英』 권6, 71면; 김하라, 『俞晚柱의 『欽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a, 179~184면.

65) 俞晚柱, 『欽英』 권6, 482면; 김명호, 앞의 책, 2013, 69면.

‘서명’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⁶⁶⁾ 평비자가 자신의 글을 평어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상 작품에 대한 성실한 독해를 바탕으로 대상 작품의 주제나 입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연석』의 평어 가운데 이러한 특징은 대체로 박지원의 평어에서 확인된다.

먼저, <능안와기(能安窩記)>에 대한 평어를 예로 들 수 있다. <능안와기>는 유언호가 1771년 3월 경상도 남해현으로 유배 갔을 당시에 쓴 글로, 유언호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되어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환난에 잘 대처하고 이치를 즐겁게 따를 수 있는 수양론의 방법으로 참는 법[忍]을 주장하였다. 박지원의 평어는 다음과 같다.

‘참을 인[忍]’은 활법[活法]이 되지 못한다. 장공예(張公藝)의 집안 9대가 함께 사는 것을 당나라 대종(代宗)이 능히 해냈으니 무엇 때문이었는데? “어리석지 않고 귀머지 않으면 가장 노릇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흠이 없게 한 뒤에야 백 가지 일들이 이치에 부합하여 처하는 곳마다 편안할 것이다.⁶⁷⁾

박지원은 당(唐)나라의 장공예(張公藝)가 9대의 친족들이 화목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을 묻는 질문에 ‘참을 인’자를 100번 써냈던 고사를 들고서 참을 인자는 결코 융통성 있는 방법[活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대신 박지원은 당나라 대종이 했던 말을 끌어오고 『중용(中庸)』의 구절을 활용하여 각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것을 권하고 그래야만 만사가 이치에 합당하여 끝내는 편안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즉, 여기서 박지원은 유언호가 일종의 수양 방식으로 택했던 “忍則熟, 熟則安”에 전제된 “忍則熟”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⁶⁸⁾ 이 같은 박지원의 견해는 <중옥에게 답하다(答仲玉)[之二]>에서 서술한 내용과 흡사하다.

66) 여기서 ‘서명’이라 함은 평비자가 자신의 글을 가져와 자신을 드러냄을 의미한다. 물론 평비자가 이와 같은 평어를 쓴 이유가 온전히 자신을 ‘서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비자가 ‘서명’한 평어와 대상 작품과의 관련 방식 역시 함께 염두에 둘 것이다.

67) 俞彦鎬, 『燕石』 제2책, <能安窩記>, ④(尾批): “忍, 終非活法. 公藝之九世, 同居唐代宗, 可以能焉何者? ‘不癡不聾, 不作阿家翁.’ 故內省不疚, 然後百事循理, 隨處而安.”

68) 俞彦鎬, 『燕石』 제2책, <能安窩記>, “病者之淹牀席, 囚人之繫桎梏也, 其心若不可以頃刻處焉, 而未聞其以是而徑折其生者, 由其習之熟也, 忍則熟, 熟則安, 安然後始可爲善處患而樂循理也.”

장공예(張公藝)의 참을 인(忍) 자 백 지는 끝내 활법(活法) 융통성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장공예의 9대 동거(同居)를 당(唐) 나라 대종(代宗)이 능히 해냈으니, 무어라 말하여 그리되었소? “어리석지 않고 귀먹지 않으면 가장 노릇을 하기 어렵다.”고 하였소. 그렇다면 어느 것이 활법이겠소? 그것은 바로 애비는 애비 노릇 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 하고 형은 형 노릇 하고 동생은 동생 노릇 하고 남편은 남편 노릇 하고 아내는 아내 노릇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 노릇 하고 남종은 남종 구실하고 여종은 여종 구실하는 것뿐이요. 이번에 인재기(忍齋記)를 지으면서 이런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소. 고견을 밝혀 주시오.⁶⁹⁾

위의 편지에서 박지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활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융통성 있는 방법임을 주장한다. 이후 박지원이 여기서 개진했던 ‘참을 인’에 대한 논지는 자신이 안의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시절 대구 판관인 이단형(李端亨)이 겪는 목민관으로서의 고충을 위로하는 편지글에서도 활용된다. 여기서 박지원은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참는다’는 것이 골치 아픈 일임을 중요한 화두로 내세워 특유의 해학적인 문체로 상대방을 설득한다.⁷⁰⁾ 반면 유한준은 <능안와기>의 해당 단락의 미비(眉批)에서 『맹자』에서 말한 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유언호에게 내리기 위해 이와 같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겪게 했다는 견지에서 “(하늘이) 능하지 못한 바를 증익해주는 것은, 늘 참게 하는 것[忍]에서 나온다.”⁷¹⁾고 비평하며 경서의 권위를 빌려 유언호의 수양론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지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69) 朴趾源, 『燕巖集』 권5, <答仲玉[之二]>, “張公藝百忍字, 終非活法. 張公之九世, 唐代宗能之, 何以言之? 不痴不聾, 不作阿翁. 然則那是活法, 曰父子, 兄弟, 夫婦, 長幼, 奴僕婢耳. 今作忍齋記, 欲撻入此意, 未知如何, 示破.” 번역은 박지원 지음; 신희열·김명호 옮김, 『연암집』(중), 돌베개, 2012(개정판), 398~399면을 참조.

70) 朴趾源, 『燕巖集』 권2, <答大邱判官李侯(端亨)論賑政書>, “彼張公藝勉強九世, 所忍何事? 孔子曰: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聖人之不忍於不可忍者如此, 忍之爲字, 一之猶甚, 忍書百字乎? 其百忍之時, 首其疾焉, 頰而癢焉, 滿面黻文, 橫縱豎倒, 想見其眉間川字額上壬字. 忍於目而爲瞽, 忍於耳而爲聾, 忍於口而爲啞. 不仁哉! 欲斷其惻隱之萌, 心上一刀足矣. 惡用是疊寫百字之多也.”

71) 兪彦鎬, 『燕石』 제2책, <能安窩記>, ㉞(眉批): “增益其所不能, 常出於忍.” 이에 대한 내용은 『孟子·告子下』 제15장,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참조.

이처럼 박지원은 자신의 글을 활용하여 유언호가 생각했던 “忍則熟, 熟則安”의 논리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유배지에서의 유언호가 오히려 내적으로 성찰하고 그곳에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평어는 결코 ‘서명’만을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상 작품 속에 나타난 작자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비록 다른 의견을 제시할지라도 작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데서 출발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유언호가 1755년에 김헌재(金獻材, 1722~1758)가 박은(朴聞, 1479~1504)의 문집인 『읍취헌유고(搢翠軒遺稿)』를 필사한 데에 쓴 발문에 단 박지원의 평어를 들 수 있다. 유언호의 발문과 해당 평어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읍취헌의 문장이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서문에서 이미 모두 논하였으니 어찌 사족을 덧붙이겠는가마는, 내가 달리 느끼는 바가 있다. 문집 가운데 더불어 창수하고 화답한 작품들은 남곤(南袞)과 함께한 것이 많다. 이때 두 사람은 서로의 신의가 두텁고 명절(名節)이 높았으며 진실로 막역지우였지만, 결국 정(正)과 사(邪), 숙(淑)과 특(慝)의 사이에서 매우 멀어지게 되었다. 그 시초를 돌아보건대 털끝만 한 차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무릇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어긋나기 쉬우며, 남들과 사귄드 믿기 어려움이 이와 같다. 이 문집을 보는 자는 그의 시문만을 아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한 그 경계하는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다.⁷²⁾

㉔(尾批): 남곤이 바야흐로 죽을 적에 그가 평생 저술한 문장을 다 불태우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보존한들 누가 다시 보겠는가.” 하였다. 오호라! 군자인 경우에는 아주 짧은 글이나 얼마 남지 않은 책이라도, 읽고 외우고 각판하는 것도 부족해서 필사해 두지만, 소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스스로 없애 버리기에 바빴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라, 하물며 후세이라! 유자광은 소인이다. 남곤도 『유자광전』을 지은 적이 있다.⁷³⁾

72) 俞彦鎬, 『燕石』 제3책, <題金季賢(獻材)所謄搢翠軒集後>, “余惟翠軒文章之冠吾東, 序文已盡之, 安容復贅, 抑余別有感者. 集中所與唱酬和復, 卽士華居多, 當是時, 以信義相孚, 名節相高, 誠若莫逆友, 而畢竟正邪淑慝之遠甚. 顧其始, 直毫釐差耳. 夫人趨向之易乖, 交際之難信, 有如是矣. 覽斯集者, 不能愛玩詩文, 而於此亦當知戒也夫.”

73) 俞彦鎬, 『燕石』 제3책, <題金季賢(獻材)所謄搢翠軒集後>, ㉔(尾批): “衰之將死也, 悉焚其平生所著文章, 曰: “使此存者, 誰復觀也.” 嗚呼! 在君子則雖隻字片言殘篇剩稿, 讀之誦之刻之, 不足而謄之, 在小人則猶且自削之不暇也, 而況他人乎, 而況後世乎, 柳子光小人也, 衰亦嘗著于子光傳.”

유언호는 박은의 문장을 고평하면서 박은이 겪었던 남곤(南袞, 1471~1527)과의 불행했던 관계를 환기시킨다. 한때 박은은 기묘사회에 관여한 주요 인물이었던 남곤과 막역지우였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유언호는 박은의 시문집을 보는 이들이 그의 문장만을 사모하고 완상할 것이 아니라 그와 남곤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경계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 글은 박지원이 22살 때 문인들과 함께 북악산 기슭의 대은암에서 노닐며 주고 받은 시들에 대한 서문으로 쓴 <대은암 창수시서(大隱巖唱酬詩序)>의 주제와 유사하다. 박지원은 이 글에서 사대부로서의 의리를 지킨 박은과는 달리 소인의 면모를 지닌 남곤을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위의 평어는 <대은암 창수시서>의 마지막 부분과 비교했을 때, 문장의 구성과 내용이 흡사하다.⁷⁴⁾ 다만 평어에서는 <대은암 창수시서>와는 달리 마지막에 그 자신도 역사적으로 소인(小人)으로 평가되었던 남곤이 무오사화를 일으킨 유자광(柳子光, 1439~1512)의 면모를 폭로한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박지원은 분명 유언호의 위의 글을 읽고 자신이 젊은 시절에 써 두었던 박은과 남곤의 일화를 다룬 글을 떠올렸을 것이다. 박지원은 유언호가 서술했듯 박은과 남곤의 돈독하고 남달랐던 교유도 결국은 털끝만 한 차이로 인해 흐트러져 버렸고, 후인은 이 같은 과거 선인들의 전례에 따라 경계할 뿐이라는 입론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랬기에 이와 상통하는 자신의 글을 곧장 평어로 가져와 유언호의 글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박지원의 평어 서술 방식은 유언호의 유기(遊記)에 대한 평어에서도 확인되는 바, 대상 작품에 대한 동의 혹은 반대 의견의 제시를 위해 자신의 글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은 박지원의 평점비평 행위가 갖는 특징적인 면모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이와 같은 ‘서명’의 비평 행위는 한편으론 평비자 자신의 글에 대한 자의

74) 朴趾源, 『燕巖集』 권3, <大隱巖唱酬詩序>, “而袞之將死, 悉焚其藁曰: “使藁傳者, 孰肯觀之哉。”由是觀之, 文章奇遊, 信一餘事爾, 何與於人之賢不肖, 而在君子則來者慕其迹, 後世尙恨其傳之不多也, 而在小人則猶且自削之不暇也, 而況於他人乎?” 유언호의 『음취헌집』 제후 및 그 평어가 박지원의 <대은암창수시서>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김명호 선생님의 교시에 감사드린다.

75) 박지원은 유언호가 평안남도 성천군 일대를 유람하고 남긴 <遊成都記>의 평어에서 자신의 글 <翠眉樓記>에서 예시한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서술하고 동일한 의론을 개진하고 있다. 兪彦鎬, 『燕石勝遊記』, <遊成都記>, 14-b; 朴趾源, 『燕巖集』 권7, <翠眉樓記>.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식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평비자가 자신의 글을 가져옴으로써 자신을 ‘서명’하고, 자신의 글을 다시 하나의 텍스트로서 읽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농후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서명하는 동시에 대상 작품과의 ‘상호 작용’을 모색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권점이 기호적인 층위에서 원 텍스트에 가 닿는 것과는 달리 평어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다 명료하게 대상 작품과의 의미적 순환을 만들어내고 조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평비자가 자신의 글을 가져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상 작품 혹은 작가와의 소통을 바랐던 것은 아닐까 한다.

한편 박지원이 행한 이러한 비평 방식은 동시대 평점비평서인 『청성잡기』나 『풍석고협집』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덕무는 자신이 『선굴당 농소(蟬橋堂濃笑)]에서 썼던 말을 가져와 『청성잡기』의 평어로 활용했으며,⁷⁶⁾ 서유구의 『풍석고협집』에 대한 평어에서도 자신의 글과 시를 평어에 인용했다. 『풍석고협집』의 또 다른 평비자인 이의준(李義駿, 1738~1798) 역시 자신의 논변을 가져와 평어로 활용하였다.⁷⁷⁾ 이들은 <능안와기>에서 박지원의 평어와 같이 대상 작품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공감의 차원에서만 그와 같은 평어를 썼다. 또한 자신의 글을 재인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일찍이 지은 시에[余嘗有詩曰]”, “내가 지은[鄙著]”, “내가 언젠가 말하기를[余嘗有語曰]”과 같이 자신을 평어의 문두에 표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이덕무의 평어가 수록된 『청성잡기』 제1책의 성립시기가 1790년 겨울 이후인 점, 『풍석고협집』에 수록된 작품의 창작 연대가 1781~1788년인 점에 따라 두 책에 대한 평비자의 평점비평은 두 책이 저술된 시점 혹은 그 이후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면,⁷⁸⁾ 이들의 평점비평은 박지원이 『연석』에 평점비평을 시작한 시점보다 이후이다. 즉 이덕무, 이의준이 자신의 글을 가져와 평어로 삼는 비평의 방식은 『연석』 평점비평의 문화적 풍토 속에

76) 成大中, 『青城雜記』 제1책, <質言>(24)에 대한 李德懋의 평어 “僕嘗有語曰: ‘勝於我者慕之, 等於我者愛之, 不及於我者憐之, 天下可太平.’”;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3, <蟬橋堂濃笑>, “勝於我者, 仰而慕之. 與我同者, 愛而交相助. 不及於我者, 憐而教之. 天下當太平矣.”

77) 『풍석고협집』에서 이덕무와 이의준이 자신의 논변과 시구를 직접 인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김대중, 앞의 논문, 39~41면 참조. 선행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평어들을 평비자들이 작가의 입론에 전폭적으로 공감한 바탕위에서 동인적 유대감을 표출한 경우로 보았다.

78) 김영진, 앞의 논문, 2003b, 203~205면; 김경, 앞의 논문, 2011, 145~147면 참조.

함께 공유되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유언호의 장서각본 『연석』을 주 텍스트로 삼고 최근 학계에 발굴된 신자료 및 주변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석』 평점비평의 성립 배경과 방식을 고구하고 『연석』 평점비평이 갖는 특징과 그 의미를 밝혔다. 『연석』의 평점비평은 작자인 유언호의 가까운 벗인 박지원과 유한준이 행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유언호-박지원-유한준’의 시각이 포개어진 『연석』 텍스트는 그 자체로도 평점비평사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산문 비평사 속에서도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하나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석』 평점비평의 배경과 방식을 바탕으로 『연석』 평점비평에서 권점과 평어가 갖는 의미를 도출해보았다. 먼저 ‘작가-평비자’, ‘평비자-평비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권점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두 평비자인 박지원과 유한준의 권점이 갖는 대화적 관계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문학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되었던 박지원과 유한준의 관계를 재고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어에 대해서는 평비자가 자신을 ‘서명’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는 『연석』의 평점비평 가운데서도 박지원의 평어에서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한편 이 같은 성격의 평어는 평비자가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상 작품과 평어가 상호 조응하는 독특한 비평 방식임을 밝혔고, 이는 특히 박지원이 『연석』의 평점비평을 하고 난 시점보다 조금 뒤의 시기에 행해진 『청성잡기』나 『풍석고협집』에 보이는 이의준, 이덕무 등의 평어의 비평방식과 유사함을 밝혔다. 요컨대 『연석』은 18세기 후반 조선 문인들 사이의 상호 평점비평이 성행하던 시기에 등장한 평점비평서로서 당대의 평점비평이라는 시대사적·문화사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박지원과 유한준의 산문 비평의 실제와 그들의 비평가적 면모 및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연석』의 평점비평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개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석』의 평점비평에 보이는 다양한 평어에 대해 심미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박지원과 유한준의 ‘비평가’적 면모 역시 다각도에서 조명될 필요성이 있는바, 이는 앞으로 『연석』에 수록된 유언호 산문에 대한 심층적인 작품 분석을 겸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俞彦鎬, 『燕石』,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 『燕石』, 한국문집총간 247.
——, 『燕石勝遊記』,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
俞致雄 編, 『杞溪文獻』, 富雲獎學會, 1963.
-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167.
南九萬, 『藥泉集』, 한국문집총간 132.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成大中, 『青城雜記』, 한국고전번역원 소장.
俞萬柱, 『欽英』 6(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俞漢雋, 『著庵集』, 驪江出版社, 1987.
——, 『自著』, 한국문집총간 249.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9.
- 茅坤 批評; 何 手校, 『唐宋八代家文抄』, 서울대 규장각, 한은289.
范 曄, 『後漢書』, 電子版 中國基本古籍庫.
姚桐壽, 『樂郊私語』, 電子版 中國基本古籍庫.
朱 熹,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2. 단행본

- 강민구, 『조선후기 문학비평의 실제』, 보고사, 2010.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3, 돌베개, 2009.
——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돌베개, 2012(개정판).
박희병,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 돌베개, 2010.
宋佐彬 編, 『恩津宋氏同春堂文正公派譜』, 同春堂文正公派譜所, 1994.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개정증보판).

3. 논문

- 김 경, 『李德懋 散文批評 研究: 鐘北小選, 楓石鼓篋集 所在 批評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 『李德懋의 『青城雜記』 評語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제33집, 동양한문학회, 2011, 143~173면.
- 김대중,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동석, 『유언호의 연행록과 조환의 연행일기에 대한 고찰 - 대청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175~208면.
- 김명호, 『박지원의 금강산 유람과 창작』, 『한국문화』 제7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51~78면.
- 김수진, 『『乾川藁』 評點批評 再論』,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학회, 2011, 269~316면.
-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a.
- , 『青城과 靑莊館의 교유』, 『青城雜記』, 『문헌과 해석』 제22집, 태학사, 2003b, 196~219면.
- 김하라, 『俞晚柱의 『欽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a.
- , 『俞晚柱의 『水滸傳』 讀法』, 『한국한문학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b, 391~434면.
- 박경남, 『俞漢雋·朴胤源의 도문분리 논쟁과 俞漢雋의 各道其道論』, 『한국한문학연구』 제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333~363면.
- , 『俞漢雋의 道文分離論과 散文 세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기성, 『則止軒 俞彦鎬 散文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a.
- , 『朴趾源을 통해 본 俞彦鎬』, 『동방한문학』 제74집, 동방한문학회, 2018b, 249~276면.
- , 『深遠 李惟秀와 東園雅集』, 『한문학논집』 제52집, 근역한문학회, 2018c, 197~229면.
- 박 범, 『1787년 유언호의 대청사행단 구성과 운영』, 『한국사학보』 제76집, 고려사학회, 2019, 7~35면.
- 박영민, 『俞彦鎬의 悼亡文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가족문화의 한 양상』, 『한국사학보』 제76집, 고려사학회, 2019, 63~96면.
- 박철상, 『燕巖 朴趾源의 『燕石』 評批』,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별지), 2018.
- 심경호, 『조선의 畫像과 贊에 관한 窺見』, 『국문학연구』 제31집, 국문학회, 2015, 71~

109면.

유동재, 「『文訣』의 創作論과 그 文論史的 意義」, 『한국한문학연구』 제38집, 한국한문학회, 2006, 299~332면.

유정열, 「李匡贊의 批評 研究: 『評斗南』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광수, 「유언호 영정 모사도 제작연구」, 『미술문화연구』 제8집, 동서미술문화학회, 2016, 146~173면.

임혜련, 「정조의 배향공신 則止軒 兪彦鎬의 정치활동」, 『한국사학보』 제76집, 고려사학회, 2019, 37~61면.

A Study on the Pyeongjeom criticism in Yu Eon-ho's *Yeonseok*

Pyo, Ga-ryeong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at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yeongjeom criticism(評點批評) in *Yeonseok*(燕石) written by Yu Eon-ho(俞彦鎬, 1730~1796).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based primarily on analysis of the only existing manuscript copy of *Yeonseok*(燕石), which is currently stored in Jangseogak library, and also uses secondar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researcher regarding other newly discovered materials related to *Yeonseok* to scrutinize the background of the pyeongjeom criticism in *Yeonseok* and prove that the writers behind this pyeongjeom criticism are Park Ji-won(朴趾源, 1737~1805) and Yoo Han-joon(俞漢雋, 1732~1811).

The criticism presented in *Yeonseok*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Kwonjeom'(圈點)(emphatic dots), and the other is 'Pyeong-eoh'(評語)(critical words and phrases). The pyeongjeom criticism can also be distinguished by colour. Red is used to mark the criticism composed by Park Ji-won and blue is used to mark the criticism by Yoo Han-jo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wonjeom and pyeong-eoh used in *Yeonseok* can also be found in the Ming dynasty's representative book of pyeongjeom criticism *Selected Works of Writings by the Top Eight Great Writers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唐宋八大家文鈔), written by Mao Kun(茅坤), and in the pyeongjeom criticism that circulated in the late 18th century of the Chosun Dynasty. However, even while sharing similar methods as these other examples, the pyeongjeom criticism in *Yeonseok* also has its own distinctive character. This thesis sheds light on both the shared methods and the distinctive aspects of the pyeongjeom criticism in *Yeonseok*.

After analyzing the general features of kwonjeom and pyeong-eoh, this paper examines the way they function and interact within the text of *Yeonseok*. As kwonjeom is conveyed semiotically, it is difficult to decode its meaning, so many studies dealing with pyeongjeom criticism have overlooked its function. However, this thesis evaluates

the use of kwonjeom from the perspective of viewing it as a unique form of criticism and thereby demonstrates that Park Ji-won and Yoo Han-joon's use of the kwonjeom can be considered as a dialogic effort. In regard to pyeong-eoh,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ritics Park Ji-won and Yoo Han-joon use their own writing from previous compositions as critical comment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Park Ji-won's criticism. As a result, the pyeongjeom criticism in *Yeonseok* can be considered a unique style of criticism that engages in a dialogue with its subject text rather than offering a simple assessment, resembling the style of criticism practiced by a little later by writers like Lee Deok-mu(李德懋, 1741~1793) and Lee Eui-jun(李義駿, 1738~1798) in *Cheongseongjapga*(靑城雜記) and *Panseok-Kobryupjijik*(楓石鼓篋集).

In conclusion, *Yeonseok* can be considered a means for gaining a sense of the historical and literary significance of the interactive style of pyeongjeom criticism which became popular practice in the late 18th century between Chosun literatures as well as an authoritative source of reference for gaining an understanding of Park Ji-won and Yoo Han-joon's prose criticism and their critical demeanour and inclinations.

keywords: Yu Eon-ho, *Yeonseok*, Park Ji-won, Yoo Han-joon, Pyeongjeom criticism,
Prose criticism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
